“광주, 대한민국 활력 성장판 여는 도시 될 것”

●강기정 시장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전년比 7천27억 증가한 7조6천69억원 예산안 편성

지역경제 활력·살아나는 도시·인재 양성에 주안점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광주는 대한민국 활력의 성장판을 여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는 사람을 키우고, 도시를 살리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광주의 전략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 GRDP로 수치화하는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대전환의 시대에 광주는 AI(인공지능)·미래차산업 등과 같은 미래 주도 산업과 창업 성장, 인재 양성의 크기를 키우고 광주가 지켜온 가치인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 문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그 가치가 돌봄경제, 사회적경제, 콘텐츠산업 등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7조6천69억원 규모로 전년도 본예산(6조9천42억원)보다 10.2%(7천27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 ▲사람을 키우는 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할 계획이다. 온라인 소비와 스마트기술 확산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소상공인이 적응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과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광주상생카드에 196억원을 반영해 정부의 전액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 창업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과 실증을 위한 8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광주와 성장을 함께 할 청년들의 보금자리, 일자리에도 24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2025년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을 통해 광주를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초등생 무료, 청소년·어르신 반값 교통비, 생애주기별 대중교통요금 할인 제도인 ‘광주 G-패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께’ 확대, 걷고 싶은 길 프로젝트,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 정비, 스포테인먼트 도시, 공원도시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람을 키우는 재정’으로 세심한 돌봄과 의료정책을 연계해 시민의 일상을 살피고 촘촘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통해 기업이 찾는 인재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대표 정책이 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손자녀 가족돌보미,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광주형 저출생 정책을 확대한다.

자정에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21개 응급실을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으로 연결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등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선도할 계획이다.

광주의 오월정신을 닮은 ‘통합돌봄’은 고립된 개인을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별돌봄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돌봄으로 확장한다.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 1조1천884억원을 편성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돌봄도시를 구현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광주에는 인재가 없어 기업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AI영재고등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 AI대학원 등 유치원부터 전문 교육기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수희 기자

전남도, 동절기 취약층 보호 1천333억 투입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등 보건복지 종합대책 추진

전남도가 올해 겨울 기록적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동절기 보건복지 종합대책으로 20개 사업에 1천333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서 발굴한 위기 가정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연계해 1인가구 기준 생계유지비 월 71만3천원,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여기에 전기요금,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혜택을 동시에 누리도록 더 촘촘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전남도 명품 복지브랜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원 대상을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대폭 확대하고 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 수리, 화재 예방점검, 생활안정금 최대 70만원 지원, 노후주택 개선 사업 최대 150만원 지원 등 두터운 복지 지원을 펼친다.

한파 등으로 질병·부상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돌봄서비스 자격에 못 미치는 도민에게는 재가돌봄, 가사·이동 지원, 방문목욕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한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과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 김장김치 5천500박스 배부, 연말연시 기부금 모금액 114억원 달성 추진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집중한다.

모든 시·군 9천275개 경로당에는 시설을 찾는 어르신의 따뜻한 생활을 위해 난방비를 월 40만원, 양곡비를 월 5만2천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경로당별로 발생하는 운영비 잔액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식사 밑반찬이나 재료 구입비 등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노인복지관 등 138개 경로식당에 무료 식사 제공, 등록장애인 6천500명에게 상시 안부 확인, 방한용품 지원, 가사·이동보조 등 겨울철 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에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시·군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45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랭질환자 발생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

김영록 지사는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두텁고 더 촘촘한 겨울나기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전남형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한파 발생 빈도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는 올겨울 도민 모두가 따뜻한 생활을 누리도록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시설 상가 의무 비율 10%로 완화

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된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주상복합 건물의 기능이 주거단지 위주로 치우치자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3월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산·울산·대구·대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은 상가 미분양 우려를 줄이고 건축비 절감 등을 하기 위해 상가 의무 건축 비율을 줄여달라고 요구해 왔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공동화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보류된 조항도 심도 있게 논의해 현실에 맞는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미래 초등교사들과 교육현안 논의

姜시장, 광주교대서 현장대화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미래 교원들과 늘봄학교,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임용 절벽, 악성 민원 등 교육계 현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교육대학교에서 현장대화 ‘청춘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를 개최했다.

강 시장과 청년들은 늘봄학교 등 현실적인 교육 문제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 교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과 청년들은 지역 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기정 시장은 “청년들 스스로 인구 유출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도 질 좋은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수희 기자